

안녕하십니까? 미한국상공회의소(KOCHAM) 사무국입니다.

아래 경제 기사 참고하시길 바랍니다.

오늘 오전에 '사이버 보안과 관세 환급' 세미나가 열렸습니다.

[미국 경제]

- Bloomberg 일자리 강한 기대로 2월 미 소비자 신뢰도 상승
- WSJ: 트럼프 1년 재임, 미 경제 성적표는?
- Bloomberg: 연준 이사 Cook, “연준, 시로 인한 일자리 감소 막기 힘들어”

[물류]

- Bloomberg: LA 항만청 책임자 “연방대법원 관세 판결 이후 화물 크게 늘 수 있어”

[무역 전쟁]

- Bloomberg: 트럼프, 법원 판결후 새로운 관세 무역 조사 모색
- Bloomberg: 트럼프 관세 거부하면 법적 장애 직면한다
- WSJ: 트럼프 관세 거부하면 법적 장애 직면한다

[미국 경제]

Bloomberg: US Consumer Confidence Rises on Stronger Prospects for Jobs

일자리 강한 기대로 2월 미 소비자 신뢰도 상승

- 향후 미 경제, 일자리 사장, 소득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으로 2월 미 소비자 신뢰도가 상승했다.
- 민간 경제연구기관인 The Conference Board가 오늘 화요일 발표한 소비자 자신리지수는
- 1월달 보다 올라 2월에 91.2를 기록했다. 이번 수치는 예상치를 웃돌았다.
- 앞으로 6개월에 대한 기대를 보여주는 지표는 7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해 72까지 올랐다. 반면에 현재 경제 여건을 보여주는 수치는 하락했다.
- 이 같은 신뢰도 상승은 노동시장의 안정화와 인플레이 둔화를 보여주는 상황으로 인한 것이라는 것. 그러나 미국인들은 자신들의 일자리 전망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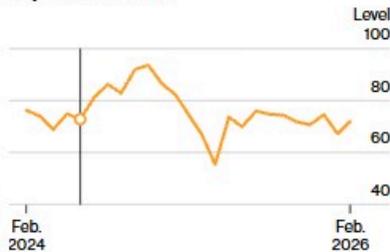
US Consumer Confidence Rises in February

Views on the economy, income and job prospects improved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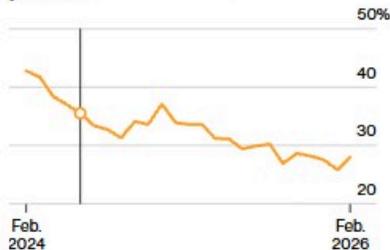
Consumer confidence index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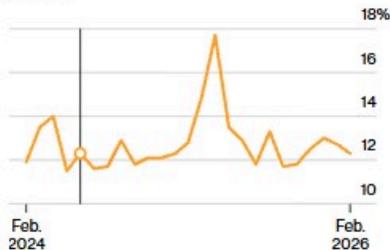
Expectations index



Share of consumers who say jobs are plentiful



Share of consumers who expect incomes to decline



Source: The Conference Board

기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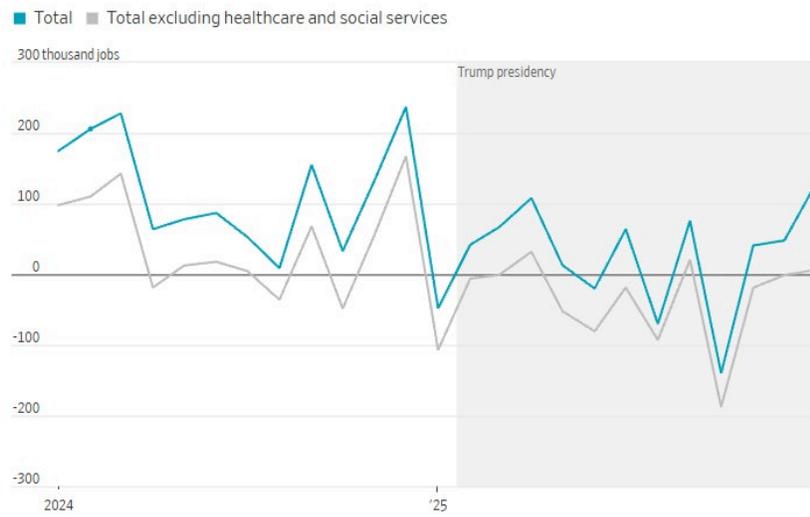
WSJ: Sizing Up the U.S. Economy in Trump's First Year

트럼프 1년 재임, 미 경제 성적표는?

- 트럼프는 재임 1년이 지난 오늘 화요일 밤 9시에 국정연설을 하게 된다. 그의 1년간 재임 기간중의 미국 경제 지표를 알아본다.
- 일자리 시장은 어려운 상황이며 단. 의료 부문만 예외다. 작년 미 신규 고용은 18만 1천 개에 그쳤다.
- 고용이 줄었지만 실업률은 올라가지 않았다. 11월에 4.5%였지만 최근에는 4.3%로 내렸다. 이민 감소 때문이다.
- 인플레이 급등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. 그러나 관세 부담은 결국 기업과 소비자가 지게 되는데 생활 물가는 여전히 높아 실질 임금은 전년도 보다 다소 상승했다.
- 낮은 실업률과 임금 상승으로 소비 지출은 유지되고 있으며 경제가 유지되고 있다. 채용 둔화에도 불구하고 미 경제는 여전히 성장하고 있다. 그러나 성장 속도는 둔화되었다. 작년 GDP는 2.2%로 둔화하는 상황이다.

Jobs | Needs improvement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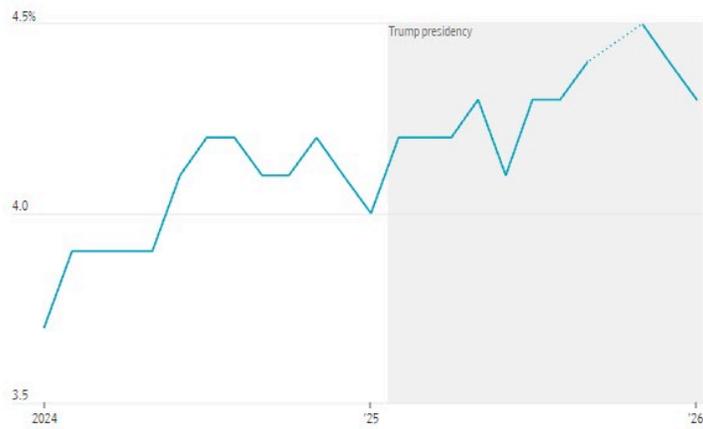
Nonfarm employment, change from a month earlier



Source: Labor Department

Unemployment | Exceeds expectations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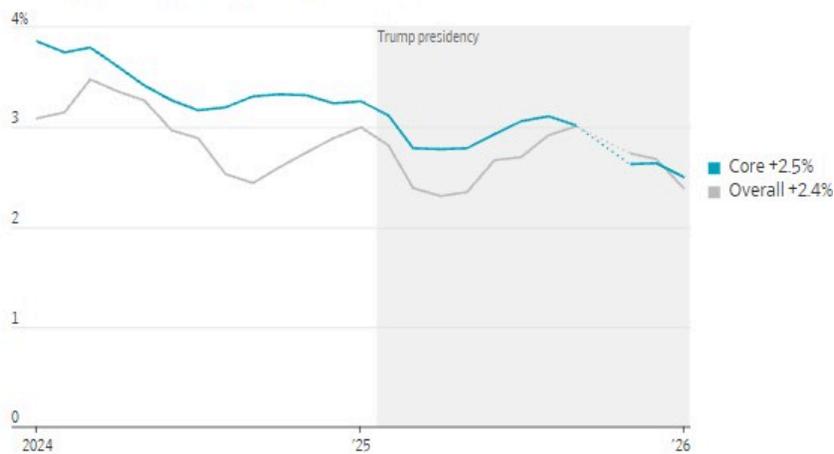
Unemployment rate



Note: Seasonally adjusted. Data for October 2025 is unavailable.
Source: Labor Department

Inflation | Shows promise

Consumer-price index, change from a year earlier



Note: Data for October 2025 is unavailable. Core excludes food and energy prices.
Source: Labor Department

Bloomberg: Cook Says Fed May Not Be Able to Counter AI-Driven Job Loss

연준 이사 Cook, “연준, AI로 인한 일자리 감소 막기 힘들어”

- 연준 이사 Lisa Cook은 인공지능으로 인한 실업 증가 상황을 연준이 충분히 막지 못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.
- 그는 “일반적인 방식으로 금리를 조절하는 것만으로는 AI 때문에 생긴 실업을 막기 어렵고, 금리를 조절할 우에 물가가 오를 수도 있다” 말했다.
- 또한 AI가 경제 전체의 생산성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까지는 5~10년이 걸릴 수 있으며, 연준은 이미 AI를 경제 전망에 반영하고 있다고 언급했다.

기사

[물류]

Bloomberg: Port of LA Chief Sees Potential Cargo Surge After Court Ruling

LA 항만청 책임자 “연방대법원 관세 판결 이후 화물 크게 늘 수 있어”

- LA항만 Executive Director인 Eugene Seroka는 Bloomberg Television 인터뷰에서“기업들과 수입업자 사이에 관세율이 낮아지면, 화물이 시스템을 통해 빠르게 움직일 수 있을 것”이라고 말했다.
- 그런데 트럼프의 무역정책 발표에 따라 그동안 수출은 계속 감소해 왔다. 특히 중국으로의 선적이 크게 줄었다.
- 미국에서 가장 분주한 컨테이너 항구인 LA 항만청에 따르면, 대두 선적은 80% 줄었고, 구체적으로 지난 13개월 중 9개월 동안 수출이 줄었다.

기사

[무역 전쟁]

Bloomberg: Trump Eyes New Trade Probes to Revive Tariffs After Court Defeat

트럼프, 법원 판결후 새로운 관세 무역 조사 모색

- 미국은 1962년 제정된 무역확장법 제232 조항에 따라, 배터리와 산업용 화학제품 등 다양한 제품의 수입이 미치는 영향 관련 조사를 모색하고 있다.
- 트럼프 행정부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새로운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며, 대통령은 제232 조항 권한을 통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.
- 또한 무역대표부는 대통령이 1974년 무역법 제301조항에 따른 조사도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.
- 이는 거래 상대국의 차별적 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명목이라며 상대국 차별적 조치는 산업 과잉 생산 능력과 디지털 서비스 세금 등 분야를 포함한다.
- 122 조항 관련 모든 국가에 대한 관세 10%는 곧 시행되며 이를 15%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.

기사

Bloomberg: Trump Faces Tough Legal Landscape to Oppose Tariff Refunds

트럼프 관세 거부하면 법적 장애 직면한다

-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대법원에서 무효 판정을 받은 관세에 대한 환급을 거부하려고 한다면 법적 장애에 부딪힐 수 있다.
- 연방 법무부 소속 변호사들은 대법원 심리 관련 서류에서 이미 “대법원까지 간 사건에서 원고가 이기면 ‘환급금과 이자’를 반드시 받게 된다”라고 명시했다.
- 무역 변호사들은 판사들이 이러한 환급 약속을 행정부가 지켜야 한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한다.
- “연방 법무부는 최근 새로운 관세 심리 케이스에서 환급 반대 주장을 사실 상 배제했지만, 그렇다고 환급 논쟁 가능성을 완전히 없앤 것은 아니다”라고 무역 전문가들은 경고하고 있다.

기사

WSJ: Here Are (Some) Answers to Your Biggest Tariff Questions 향후 관세와 환급 관련 추세는

- 오늘 화요일부터 미국 수입업체들은 대법원이 불법으로 판결한 국제 긴급 대통령 권한법(IEEPA)에 근거한 상호 관세 등 관세를 더 이상 내지 않게 된다. 무효 판결 때문이다.
- 트럼프 행정부는 1974년 무역법 301조항과 1962년 무역확대법 232조항을 근거로 더 오래 지속되고, 특정 품목을 겨냥한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다.
- 수입업체들은 1,330억 달러 이상에 달하는 IEEPA 관세에 대해 환급을 받기를 기대하고 있지만, 환급 절차가 아직 불확실하고 법적 소송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.

기사

KOCHAM | 445 Park Ave | New York, NY 10022 US

[Unsubscribe](#) | [Constant Contact Data Notice](#)